

집콕족 '외식' 줄고 '식품' 구입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호남권 109명 조사...54% 온라인 구매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 구입비...월 평균 41만459원 8.4% ↑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기점으로 호남권 한달 평균 식품 구입비가 3만원 가량(8.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권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식품구매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식품 소비 분야 영향분석'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11~16일 호남권 거주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호남권 응답자들의 한달 동안 평균 식품 구입비를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한 결과, 3만2000원 정도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 37만8532원 이었던 평균 구입비는 이후 41만459원으로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구매는 온라인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매 유통매장으로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 식품구매가 늘었다는 물음에 '그런 편' 38.5%, '매우 그렇다' 15.6% 등 답변율이 '변함없다'(45.9%) 보다 높았다. '지난 주 온라인에서 1회 식료품을 구매한 금액'을 묻자 평균 5만5274원 어치를 샀다고 답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46.3%가 가장 많았고 ▲2만원~5만원 미만 31.6% ▲10만원 이상 14.7% ▲2만원 미만 7.4%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식료품 구입 주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일 산다는 답변이 0% 였지

만, 이후 3.7% 답변이 늘어났다. 온라인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5%에서 12.8%로 3.7%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식료품 구입 장소를 바꿨다는 응답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중 대형 할인점에서 동네 슈퍼마켓으로 바꿨다는 비중이 42.1%로 가장 많았다. 대형 할인점→편의점(10.5%)이 뒤를 이었고 대형 할인점에서 각각 대가족 슈퍼마켓·친환경 식품전문점 등으로 바꿨다는 비중은 5.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지역민들의 외식 생활상도 바꿨다. 10명 중 7명(69.7%)은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외식 횟수는 이전 수준보다 줄어든 것 같다는 답변이 18.3%에 달했고 '이전 수준 유지' 58.7%, '늘어났 것 같다' 22.9%를 나타냈다. 배달·테이크아웃(포장주문) 횟수가 늘었다는 답변은 44%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테이크아웃 주기는 주 2~3회가 33%로 가장 많았고, 2~3달에 1회보다 드물게 18.3%, 주 1회 16.5%, 1달에 1회 1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를 크게 늘린 식료품으로는 채소와 쌀·곡물이 각각 17.4%로 1위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른 응답자는 11.9%, 과일 11%, 육류 9.2%, 가정간편식 8.3%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산물·식품의 국내 생산 필요성과 중요성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22.9%)를 포함 84.4%가 공감했다. 김상호 연구위원은 "외식업체의 경우 단기적인 경영악화가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소 외식업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조합장 대표 농협 이사 누가될까

영암·목포·나주 등 7명 도전 내일 전남 조합장 120명 투표

전남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대표를 뽑는 관문인 '농협중앙회 이사후보자추천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2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전남 이사후보자추천회의가 26일 오후 2시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월4일 예정된 '전국 회원조합장인 이사 선거(임시대의원회)에 출마할 이사후보를 뽑는 자리다. 무안 윤남, 고흥 녹동, 영암, 해남, 목포, 영산포, 나주농협 등 7명이 자천 또는 타천으로 후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선거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추천회의에는 전남 120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1표씩 행사한다. 축협과 품목농협은

전국 단위 선출에 투표권을 갖는다. 9개 도(道)에서 1명씩 배출하는 농협중앙회 이사는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 교두보 역할을 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또 이사 1명과 대의원 34명으로 구성된 '전남농협 도운영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사 임기는 4년이다. 지역에서는 이사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현행 '농협법'은 중앙회 이사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포함한 누구도 선거운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농협총협 이사(무안 삼향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6월30일 끝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산물 안전 첫 지킴이에 영광수협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자 선정 위생안전 시설 구축 지원 받아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자에 선정돼 저온경매장 등 위생안전 시설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생산지에서부터 위관장까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옮겨지도록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첫 참가자로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 수협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해수부가 수산물의 위생적이고 신선한 유통을 위해 사업참가자에게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영광군수협에는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9대, 저온차량 2대 등 총

43억원(국비 19억·지방비 13억·자부담 11억)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서천군수협에는 저온경매장 1곳, 자동선별기 1대, 저온차량 1대 등 총 3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말부터 해수부 공개모집이 진행된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가 서류 및 현장평가를 진행, 사업계획 타당성·부지 임지여건·건축규모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했다. 해수부는 매년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공모를 추가 진행해 1곳을 더 지원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이 거래되는 첫 장소인 산지위판장이 더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재해 대비 농촌용수관리 업무 매뉴얼 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를 대비해 농촌용수관리 업무 매뉴얼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유지관리 구역별 전국 1358개로 구분하고, 실제 담당자의 업무 경험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자료의 효용성을 높였다. 구역현황에는 시설물과 용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 평면도와 용수로 노선도와 ▲주요 지점별 용수 도달 시간 ▲유지관리 동선·시설물 점검방법·업무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지구별 중점관리사항에는 각 지구별 물 관리에 있어 관리 주의점과 특징이, 시설물 운전 매뉴얼에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가동 순서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재해나 민원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위치정보(GIS) 기반의 앱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실시간 시설물 점검과 용수공급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돼지고기도 브랜드 시대

브랜드 돈육 32% 매출 증가 일반 돈육보다 성장세 2배

광주지역에서 일반 돼지고기보다 브랜드를 단 돈육이 더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1월1일~5월20일 브랜드 돈육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돈육 매출 증가율은 14.1%로, 브랜드 돈육 성장세가 2배 넘게 높았다. 브랜드 돈육 매출 증가율을 부위별로 보면 항정살이 149.1%로 가장 높았고, 등심덧살 109.8%, 갈매기살 26.2%, 삼겹살 15.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광주지역 이마트 돈육 구성비는 일반 43.2%, 브랜드 46.5%로 나타났다. 브랜드 돈육의 구성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브랜드 돈육은 보리사료로 키운 '맥돈'과 '동물복지 돈육', 축산물품질평가원 판정 1등급 이상 선별 돈육 등이 있다. 보리를 먹인 돼지는 고기 색이 선명하고 지방이 깨끗하며, 식감이 쫄깃하고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동물복지 돈육은 넓은 사육 공간과 쾌적한 온도와 습도의 유지, 상시적인 건강관리 등 70여개 항목의 세부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섭(HACCP) 인증도 획득해 위생을 인정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

학습능력 향상·치매 예방 효과 '가바 방울토마토' 출시



농협 광주본부와 평동농협이 지난 23일 광산구 신가동 광주유통센터에서 '가바 토마토' 출시 기념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지역 30개 농가 재배

1년 여의 시범재배를 거쳐 특허출원한 '가바' 성분 함량 토마토를 올해 광주지역 30개 농가가 재배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연합사업단과 평동농협은 지난 21~23일 광산구 신가동 광주

유통센터에서 가바 방울토마토 출시 기념 판촉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평동농협은 올해 1월 '가바성분을 강화시킨 토마토의 재배방법'을 특허 등록했다. 신전달물질 중 하나인 '가바'(GABA)는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이

고 당뇨병·중풍·치매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평동농협이 생산한 토마토는 '가바' 함량 2배 이상 관련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가바 토마토는 올해 30개 농가가 8ha 면적에 3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